제10강 미셸 푸코 : 새로운 미학적 윤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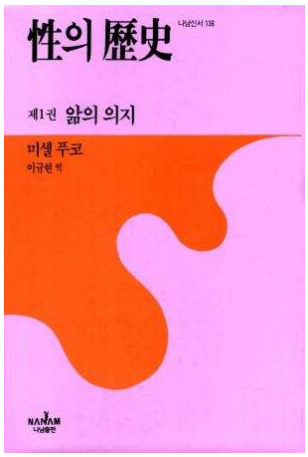
(1교시) J_Jgjin03_040112_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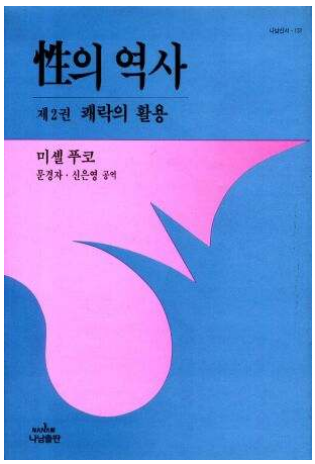
◎ 푸코의 전기 사상 - 타율적 객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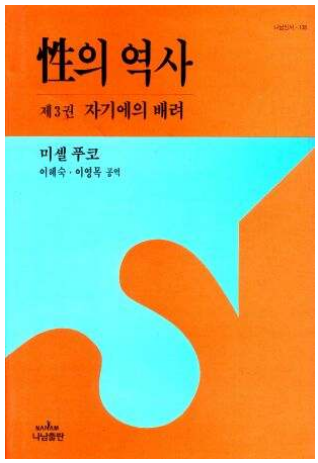
흔히 『성의 역사』의 제2권 「쾌락의 활용」을 쓰던 시점을 기준으로 푸코의 사상을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푸코의 전기 사상은 합리주의 전통에 대한 반발이자, 근대 철학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작업이었다. 푸코가 보기에 근대의 이상은 인간을 '자율적 주체'로 내세웠지만 실제 근대의 현실에서 **인간은 '타율적 객체'에 불과하다.** 인간은 자율적인 이성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국가로부터 교육받고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차츰 길들여진 것이다.

한마디로 푸코는 그의 전기 사상에서, 근대적 주체를 지식권력과 담론의 망 속에서 객체화했으며 '주체'는 단순한 담론의 효과일 뿐이라고 말한다.







미셸 푸코 『성의 역사』1,2,3권 / 나남출판 / 1999

제1권 - 앎의 의지

제2권 - 쾌락의 활용

제3권 - 자기에의 배려

◎ 푸코의 후기 사상 - 자기의 테크놀로지

푸코가 그의 전기 사상에서 주체를 객체화하는데 치중했다면, 이제 "어떻게 자신을 다시 미적-도덕적 주체로 세울 수 있느냐"하는 데로 관심을 돌린다.

푸코의 후기 사상에서는, 근대 형이상학을 내포하는 **'주체'의 개념은 폐기되고** 대신 철학적으로 오염이 덜 된 '자기'라는 표현이 선택된다.

www.artnstudy.com

(2교시) J_Jgjin03_040112_04

◎ 푸코의 후기 사상 - 자기의 테크놀로지

근대의 주체 형성 과정은 사회 보편의 틀로서 개별자를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매우 폭력적이고 보수적이다. 푸코는 주체의 개념을 폐기하고 '자기'라는 이름을 쓰는데, '자기'란 자신을 배려하며 자기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미적 주체, **제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나가는 예술적 주체**다.

주체를 객체로 만드는 데에 기여할 뿐인 '인식' 대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형성하기 위한 '배려'의 실천을 강조한다. 이로써 타율적인 근대의 주체 형성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자율적 자아 형성의 원리가 탄생한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배려'라는 푸코 특유의 존재미학이고, **'자기의 테크놀로지'**란 주체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미적, 윤리적 주체로 세우고 자기의 배려를 통해 제 삶을 예술적 완성으로 끌어올리는 수완이라 할 수 있다.

미셸 푸코 『자기의 테크놀로지』,동문선, 1997

푸코가 숨지기 두 해 전인 1982년 10月 미국 버몬트 대학이 연 세미나에서 행한 두 개의 강의와 인터뷰를 담고 있다. 예전 작업이 감옥·병원 등의 근대기구나 지식과 같은 무형의 타자가 어떻게 개인을 지배했는지 밝히는 것이라면, 여기선 개인이 자신에게 행사하는 지배의 테크놀로지를 탐구했다.

◎ 새로운 미학적 윤리학

칸트 이후 미적 윤리학을 구성하려면 윤리적 판단과 미적 판단의 형식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간극을 극복해야 한다. 과거의 도덕이 보편적 규범 하에 개별자들을 일방적으로 포섭하려 했다면, 새로운 미적 윤리학에서는 개별자가 자기의 도덕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동시에 보편성을 띨 수 있음을 입증하고 사회에 관철시키려 한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미적 윤리학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다. 고대에는 디오게네스가 있었으며, 근대에는 보들레르와 같은 모더니스트들이 있었다. 존재미학은 바로 이 예술가형 인간들을 위한 미적 윤리학이다. 때문에 이 새로운 윤리학은 그 창조성의 대가로 강하게 '엘리트주의'의 성격을 띤다.

◎ 존재미학

그리스인들은 삶을 미적으로 조직했다. 푸코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신을 윤리적 주체로 세우는 그 미학적 방식에 관심을 가진다.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구성하는, 미학적으로 자기를 형성하는 가능성을 푸코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존재미학에서 보았다.

www.artnstudy.com

(3교시) J_Jgjin03_040112_05

◎ 고대 그리스의 윤리학

그리스인들의 이상이었던 '칼로카가티아' 속에서 미(kalon)와 덕(agathon)은 하나가 된다. **고대인들의 '덕(arethe)'은 선함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수함**이었다. 고대인들은 '선(善)'이라는 낱말의 두 가지 상이한 의미-'좋다'와 '착하다'-를 아직 구별할 줄 몰랐다.
고대의 윤리학이 인생의 목표는 '행복'에 있다고 가르쳤다면, 근대의 윤리학은 인간들에게 '선의지'에 따라 행동하라는 정언명법을 내린다.

◎ 쾌락의 활용

푸코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의 자기 배려는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양생술** - 적절한 운동을 하거나 섭생함으로써 몸을 늘 건강하게 유지하는 수완.

② **가정 관리술** - 오늘날 '경제'라는 말의 어원으로서, 남성이 배우자와 함께 농장을 관리하고 후사를 잇는 데 필요한 수완.

③ **연애술** - 그리스인들에게 부부 사이는 가정 관리를 위한 조력자라는 의미가 강했고, 여기에서의 '에로틱'은 부부 사이의 사랑이 아니라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 사이의 동성애 관계를 배려하는 수완이다.

『향연』을 보면 고대 그리스에는 이성애, 게이, 레즈비언이라는 세 가지 성애가 차별 없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들이 성을 규제하는 원리는 '질적 규제'와 '양적 규제'이다.
질적 규제는 '성관계 속에서 역할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하는 것이고, 양적 규제는 '과도하냐, 적절하냐'는 것이다.
성인 남성과 미소년 사이의 성애는 개인적 차원의 사적 관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폴리스의 미래를 담당할 2세들을 교육하는 공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동성애 속에는 사적 애정의 충족과 공적 의무의 수행이 공존하고 있다. 여성의 역할을 하는 소년을 남자로 키워야 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점차 관계의 성격을 **사랑에서 우애로 전환**한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불평등한 관계에서 두 주체가 함께 지혜를 산출하는 평등한 필리아의 관계로 전환하려고 한다.

④ **철학** - 이 두 연인 사이의 우애(philia)는 지혜(sophia)를 낳는다. 지혜를 낳는 사랑, 지혜에 대한 사랑을 **필로소피아(philosophia)**, 즉 **철학**이라고 부른다. 소크라테스는 에로스의 현신이며, 그가 대변하는 철학의 정신은 곧 에로스처럼 신과 인간의 중간자(demon)로 존재하는 방식, 즉 자신의 한계를 초극하는 **초인의 존재미학**이었던 셈이다. 그리스 철학은 이렇게 에로틱의 영역에서 탄생했다.

푸코는 여기에서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발견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자신을 배려하고 자기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나가는 예술적 주체로서의 존재미학에서, 푸코는 **근대의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다.

www.artnstudy.com